

한국연극사에서 『사상계』의 위치연구

- 연극전문지 공백기(1950~60년대)의 『사상계』 극문학
수록양상 중심으로 -

김 경 숙*

차 례

- | | |
|----------------------|---------------------|
| 1. 서론 | 1) 『사상계』의 극문학 수록 양상 |
| 2. 『사상계』의 문학과 문예전략 | 2) 대학극 / 번역극의 선도 |
| 3. 『사상계』의 아카데미즘과 극문학 |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 현대연극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한국전쟁 이후 불황과 침체의 연속상황을 겪으면서도 1960년대 현대 연극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사상계』의 존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연극의 르네상스기 또는 현대연극의 출발기라 부를 정도로 연극계가 활기를 찾게 되는데 고려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극의 성행과 동인제 극단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또 미국 중심의 선진 연극문화를 접한 연구자와 비평가들의 활동이, 침체해 있던 전후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쏟아지는 서구의 연극이론과 공연문화를 소개하거나 또 국내 연극계의 동향을 알리며 분석할 연극전문지의 필요가 더욱 절실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복 후 《희곡문학》이 잠깐 나왔을 뿐 1950년대에는 연극전문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1965년 겨우 선보인 계간지 《연극》도 결국 재정난으로 두 번 만에 출간이 중단된다. 이렇듯 ‘연극전문지 공백기’라 할 수 있는 1950, 60년대에 문예전문지도 아닌 종합잡지 『사상계』의 연극관련 논문과 선진연극이론 수용 양상은 참으로 흥미롭다고 하겠다.

『사상계』는 창간해인 1953년부터 꾸준히 창작희곡 작품과 번역희곡 또는 선진 연극이론 등을 게재하고 있는데 발행부수가 최고에 이르는 4.19를 즈음하여 연극관련 글의 양 역시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사상계』 발행 부수와 같은 곡선을 그리는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는 『사상계』에 게재된 희곡작품과 희곡관련 논문, 극 비평 수록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195,60년대 한국연극사의 지형을 점검해 보는 의미가 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사상계』가 존재하던 동시대의 대표 순문예지 『현대문학』의 극문학 관련 글의 수록 양상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일간지에서 다룬 극문학 기사를 대조군으로 활용했음을 밝힌다.

주제어 : 1950년대, 1960년대, 현대연극의 출발기, 연극전문지 공백기, 『사상계』, 한국연극사의 지형, 극문학 기사.

1. 서론

이 연구는 연극전문지의 공백기라 할 수 있는 1950~1960년대에 연극 전문지의 역할을 대체했던 매체의 탐사에서 시작하였다. 해방 전만 해도 30여 권의 연극·영화 관련 전문지가 존재했었다.¹⁾ 하지만 전쟁기간은 감안하더라도 대중오락지, 종합지, 여성지, 문예지, 학생지 등이 활발히 간행되어 잡지 전성기²⁾라고 불리는 1950년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유독 연극전문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극예술』(1934)³⁾에서 시작한 연극전문지의 맥은 『희곡문학』(1949)이후 1950년대에 와서는 끊어진다. 1960년대도 재정난으로 2회 만에 중단한 『연극』⁴⁾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연극전문지의 존재 유무가 연극계의 성쇠를 가늠하는 절대적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연극전문지의 성행이 연극계의 성황을 짐작하게 하는 시대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연극전문지 공백기는 자칫 한국연극계의 침체기⁵⁾로만 규정될 위험성

1)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532-561쪽.

일제시대(1928~1940)에 나온 30권의 연극·영화잡지는 다음과 같다.

《녹성》(1919), 《예원(藝苑)》(1923), 《애조(愛潮)》(1924), 《영화(映畫)》(1926), 《키네마》(1927), 《문예·영화(文藝·映畫)》(1928), 《극성(劇星)》(1929), 《대중영화(大衆映畫)》(1930), 《프롤레타리아 영화》(1930), 《영화시대(映畫時代)》(1931), 《영화가(映畫街)》(1931), 《대중예술(大衆藝術)》(1931), 《신흥예술(新興藝術)》(1932), 《연극운동》(1932), 《신흥영화(新興映畫)》(1932), 《영화부대(映畫部隊)》(1933), 《연축(演築)》(1934), 《극장(劇場)》(1934), 《극예술》(1934), 《막》(1936), 《영화조선(映畫朝鮮)》(1936), 《조선영화(朝鮮映畫)》(1936), 《영화작가(映畫作家)》(1937), 《영화보(映畫報)》(1937), 《영화예술(映畫藝術)》(1938), 《극·영화(劇·映畫)》(1939), 《영화연극》(1939), 《무대》(1939), 《키네마 순보(旬報)》(1939), 《영협(映協)》(1940).

2) 정진석, 『한국잡지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6쪽.

3)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전문지로서 외국의 극 이론 소개와 본격적인 연극원론, 그리고 상업극단들의 연극 활동에 대한 비판이 위주가 된 연극운동론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었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4) 1965년 이진순이 자비로 출판한 6·25전쟁 이후의 최초 연극 전문지. 우리 연극계에 전문잡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다분하다. 그러나 현대연극사에서 1950년대를 본격적인 창작의 ‘원체협’의 시기, ‘자궁의 시대’⁶⁾로 부르며 ‘현대극의 출발기’⁷⁾인 1960년대를 향한 준비기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실제로 1950년대 연극계는 전쟁후유증을 겪으면서도 120여 편에 달하는 희곡이 발표되고 신인 극작가 공모전을 통한 신진작가의 배출로 기성작가들과의 차별을 피하며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⁸⁾

그렇다면 전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를 현대연극의 출발기로 꽃피게 한 에너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다다르게 된다. 바로 여기가 이 논문의 출발점인데 그 당시 연극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를 모색하던 중 매체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1950~60년대에 연극과 관련된 지면을 제공한 대표 매체를 꼽으라면 순문예지 『현대문학』, 『문학예술』, 『자유문학』과 종합지인 『사상계』 그리고 주요 일간지를 들 수 있다. 이 매체들은 연극전문지의 기능을 제각기 분담하고 있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사상계』는 게재한 연극이론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희곡 텍스트의 양과 수준 또한 순문예지에 뒤지지 않아 그 존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사상계』는 종합잡지임에도 많은 지면을 문학에 할애했고 장준하의 확고한 문학관이 반영되어 문학의 공리성을 강조하는 편집

5) 여석기, 『현대연극』, 『한국현대문화사대계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8, 471-472쪽. 여석기는 위의 책에서 1950년대 연극의 침체원인을 전란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분산과 이탈, 공연장소의 제약, 미국중심 외화의 성행으로 요약한다. 하지만 이 원인의 발화지점은 미군정 때부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군정은 ‘극장 및 흥행 취체령’을 제정하여 영화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사전 검열제를 실시하는데 이후 연극계까지 확산된 검열로 조선 연극동맹의 ‘좌익극’은 급격한 쇠퇴의 운명을 맞게 된다. 또 미군정의 ‘좌익 연극 금지’ 조치로 주요 연극인들이 대거 월북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개관하자마자 국립극장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된다.

6) 박명진, 『1950년대 희곡의 인식적 지도』, 『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24쪽.

7) 서연호, 『한국연극사』, 연극과 인간, 2005, 31쪽.

8) 오영미, 『1950년대 한국희곡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6.

방향을 보인다. 『사상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상당히 누적된 상태이나 종합잡지의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가 정치, 경제, 사상 등 이데올로기 분석과 담론분석에 치중되어있다.⁹⁾ 반면 『사상계』의 문학이 가졌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김건우의 박사논문이 유일할 정도로 문학 쪽 연구는 아쉬운 상태이다.¹⁰⁾ 게다가 이 논문은 소설과 비평 부분을 다룬 것으로 타 문학 장르의 연구에는 손이 미치지 못했다. 또 『사상계』의 극문학 연구는 영화 관련 소논문¹¹⁾을 제외하고는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논문은 『사상계』의 연극관련 텍스트의 수록경향을 살펴서 『사상계』와 타 매체와의 변별점을 찾는 것에 주력했고 연구방법으로는 『사상계』와 대조군의 서지사향을 정리하여 분석 비교하는 실증적 방법을 택하였다. 『사상계』 205권 전체의 서지사향을 정리한 결과 간단한 연극관람후

9) 『사상계』의 이데올로기 관련 주요 논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이용성, 『한국 지식인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 『思想界』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1996.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10.

김려실, 『『사상계』 지식인의 한일협정 인식과 반대운동의 논리』, 『한국민족문화』 54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이철호, 『『사상계』 초기 서북계 기독교 엘리트의 자유민주주의의 구상』, 『한국문학연구』 제45집, 한국문학연구소, 2013.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제105호, 한국사학회, 2012.

10) 『사상계』를 대상으로 나온 문학 관련 논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김건우, 『1950년대 후반 문학과 <사상계> 지식인 담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최강민, 『『사상계』의 동인문학상과 전후문단재편』,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고지혜, 『『사상계』 신인문학상과 1960년대 소설의 형성』, 『우리문학연구』 49호, 우리문학회, 2016.

정경혜, 『4·19의 장(場)과 『사상계』 신인작가들의 소설』, 『현대소설연구』 제6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1) 한영현, 『『사상계』와 대중문화 담론 - 지식인·대중·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4호, 국제어문학회, 2012.

기 등을 제외한 연극관련 이론과 논문, 기사, 창작 희곡, 번역 희곡 등의 기본 텍스트가 총 126편임을 파악했다. 126편의 텍스트는 평론과 논문이 대부분인데 이 중 순수 희곡작품은 총 21편이다. 이것은 『사상계』 문학의 전체 비중으로 볼 때 극문학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평가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시나 소설과 비교할 때 극문학의 약세는 문학 장르의 전반적 현상이며 또 연구범위 내의 타 매체 역시 같은 현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극 관련 텍스트의 상대적인 수적 열세는 『사상계』만의 특이 사항은 아니므로 이것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상계 신인 문학상에 희곡부문이 정식으로 배정되어 있었다는 점, 한국현대 연극의 첫 시작으로 꼽히는 『원고지』를 비롯하여 중요 희곡작품 다수가 발표된 장이었다는 점, 제1세대 연극비평가로 평가받는 오화섭과 여석기, 또 셰익스피어에 정통했던 최재서 같은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을 수시로 소개했다는 점 등에서 현대연극에 끼친 『사상계』의 중요도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사상계』 연극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오화섭과 여석기가 활동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연극관련 기사, 『현대문학』¹²⁾의 극문학 관련 텍스트 중 『사상계』와 일치하는 시기의 부분만을 참고하여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한국연극사의 흐름에서 『사상계』가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멀리 보아서 『사상계』극문학 연구를 위한 기본 전수조사 단계인 셈이다.

12) 1955년 1월에 창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월간 순수 문예지. 창간사를 통하여 ‘한국의 현대문학을 건설하자는 것이 그 목표이며 사명임’을 밝히고 시·소설·희곡·수필 등 문학의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외에도 고전문학 및 외국문학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1955년 창간과 동시에 현대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소설·희곡·평론의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사상계』와 함께 한 동시대 순문예지는 『문학예술』(1954.4~1957.12), 『자유문학』(1956.6~1963.8), 『현대문학』(1955.1~현재)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수명이 가장 길고 문단에 끼친 영향력이 다른 두 잡지보다 커서 『현대문학』을 『사상계』의 비교대조군으로 선정한 것이다.

2. 『사상계』의 문학과 문예전략

전후 한국 연극계가 불황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로 『사상계』의 역할을 입증하려면 『사상계』의 문학과 문예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쟁을 겪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이 불황과 결핍의 빈곤 상태였으므로 문화계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각자의 방법으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는데 1950년대 발행된 잡지 중 상당수는 문학 중심의 편집전략을 활용하여 잡지의 판매부수확대를 노렸다. 또 이 편집전략의 활용에 있어서 종합지 『사상계』는 거의 선도적이었다.¹³⁾ 그 당시의 문학은 지식인들의 지적, 예술적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상계』의 문학을 강화한 문예전략은 대학인구의 팽창과 지식인의 양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많은 지식인 독자를 끌어 모으는 흡인력으로 작용했다.¹⁴⁾ 『사상계』는 1955년 1월 소설가 김성한 주간을 중심으로 편집 위원회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철학, 사상 중심에서 문학면을 대폭 보강하는 문예전략을 세운다. 『사상계』의 판매부수는 창간기는 3,000부 정도였지만 문예란이 보강된 1955년 6월호에 6,000부, 12월호에 1만부를 돌파하고, 1956년에는 3만부를 넘어섰다. 또 1958, 59, 60년에는 8, 9만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승세는 362면의 부피로 9만 7천부(1960년 4월)를 찍고 연이어 10만 부(1960년 6월)를 넘어가면서 최고 정점을 이룬다.¹⁵⁾ 『사상계』 발행부수의 신장은 이 잡지가 지식인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한다.¹⁶⁾ 같은 맥락에서 최강민도 그 당시 문학적 영향력

13) 종합잡지 형식이었던 『학원』의 ‘학원문학상’과 종합지 『새벽』의 ‘이상신인상’ 또 『사상계』의 ‘동인문학상’과 ‘신인문학상’을 통한 우수한 문학작품과 작가들의 대거 배출은 잡지의 세력 확장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14) 최강민, 앞의 논문, 222쪽.

15) 최덕교, 『한 시대의 등불, 큰 잡지 사상계』,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501-505쪽; 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브니엘』, 『장준하문집3-사상계지 수난사』, 1985, 117-123쪽; 김삼웅, 『장준하 평전』, 시대의 창, 2009, 404쪽.

은 종합지인 『사상계』가 순문예지 『현대문학』과 대등하거나 차라리 더 우월하며 전후의 문단구조는 기존의 『현대문학』대 『자유문학』과 『문학예술』의 구도가 아니라 『현대문학』대 범 『사상계』의 구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전후 우리나라 엘리트 문인들의 총 집결지였던 『사상계』가 그 당시 일반 문학지 이상의 역할을 했음은¹⁸⁾ 『사상계』의 문예전략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인문학상과 신인문학상을 제정하여 문단 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세 번의 문예특별증간호(1961,62,63년)를 발간하였으며 문학 특집을 기획하고 좌담회를 개최하여 문학의 현주소를 짚었다. 또한 발행인 장준하의 권두언을 통해 수시로 문학의 기능에 대해 역설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사상계』의 기본 편집방향은 평화적 남북통일, 자유민주주의, 경제부흥, 전통문화계승, 복지사회 건설이었으며¹⁹⁾ 새롭게 형성되는 지식인, 학생층과 대중을 계몽함으로써 민족의 근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 중심이었다.²⁰⁾ 다음의 권두언을 통해 대중을 계몽하고 이끌어야한다는 기본 편집방향과 『사상계』의 문학관이 궤를 같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인간감정, 정신, 그리고 그 논리와 기반이 되어있는 <사상>이 작가의 참신하고 예리한 추리와 감각으로 분석되고 이해되고 비판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에게 문학이 필요한 것은 우

16)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47쪽.

17) 최강민, 앞의 논문, 223쪽. 최강민은 50년 후반 『현대문학』의 발행부수를 대략 1만 2천부 정도로 보고 『사상계』의 발행부수를 평균 4-5만 부로 잡고 비교하였다. 따라서 발행부수에서 월등했던 『사상계』를 중심으로 『자유문학』, 『문학예술』을 포함한 월남지식인들의 범 『사상계』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18) 손세일 외 좌담, 『한국문단에 새 바람 일으킨 사상계』, 『민족혼, 민주혼, 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5, 247쪽; 여석기, 『사상계 편집위원8년』, 『나의 삶, 나의 학문, 나의 연극』, 연극과 인간, 2012, 157쪽.

19) 김준엽, 『『사상계』와 나』, 『장정5-다시 대륙으로』, 나남출판, 2001, 87쪽.

20) 김건우, 앞의 박사논문 초록.

리민족이 더욱 발전하고 향상하여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만방에 떨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연기 자욱한 다방 구석에서 정신병자 모양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작가와 현대문학의 진수라고 교설을 늘어놓는 일부 인사들을, 이들은 확실히 사이비 문학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면 환자 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에서 해방되어야 하겠습니다...진실한 작품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민족을 복되게 하고 인류의 문제를 풀어 줄 것입니다.²¹⁾

<밑줄 부분은 연구자의 강조> <자료1>

장준하의 문학관이 최초로 노출된 이 글은 장준하의 문학관을 넘어서 김성환을 위시한 월남 문인들의 한 축이 어떠한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사한다.²²⁾ 1950년대 중반 ‘실존주의’가 유행하던 당시의 퇴폐적이고 허무적인 문학풍을 비판하며 문학이란 모름지기 민족을 복되게 하고 인류당면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은 철저히 공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상계』의 문학관은 이후로도 권두언을 통해 여러 차례 표출되는데 문학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절실한 책임 위에 문학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²³⁾ 또 문학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통속과 타협을 해서도, 사이비 상아탑에 스스로 유폐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²⁴⁾ 작품 창조의 기본자세는 현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지조를 세우는 것이며²⁵⁾ 위대한 문학은 자체의 철학과 모랄이 있어야한다²⁶⁾는 주장에서 문학이 갖춰야할 엄숙한 사명감까지 느끼게 한다. 특히 작가는 진지성과 야합하지 않는 지조가 있어야한다²⁷⁾

21) 『사상계』, 1955년 2월호 권두언.

22) 김건우, 앞의 책, 98쪽.

23) 『사상계』, 1955년 7월호 권두언/무기명

24) 『사상계』, 1961년 11월 통권 100호 기념 특별 중간호 권두언/무기명

25) 『사상계』, 1962년 11월 문예특별중간호 권두언 - 보다 나은 문학을 위해/무기명

26) 『사상계』, 1963년 11월 문예특별중간호 권두언 - 현실을 투시하는 내면적 경험의 눈이 아쉽다-다시 문예중간호를 내면서/무기명

27) 『사상계』, 1963년 11월 문예특별중간호 권두언 - 현실을 투시하는 내면적 경험의 눈이 아쉽다-다시 문예중간호를 내면서/무기명

는 문학인의 자세에 대한 경고는 『사상계』 필진들 스스로가 계몽의 주체임을 자각한 데서 나온 자기다짐이라 본다.

한편 『사상계』 편집부장을 지낸 유경환은 『사상계』 권두언은 1950년대 말까지는 장준하가 거의 직접 기명으로 집필하였으나 60년대 들어서는 편집위원 중에 대리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는 무기명으로 하였다고 회고한다.²⁸⁾ 이것은 권두언을 통해 밝힌 『사상계』의 문학관이 장준하를 포함한 『사상계』 전체의 공통된 문학관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상계』의 문학과 문학인에 대한 관점은 교육과 계몽을 강조한 편집방향에 부합하여 철저히 공리적인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상계』 전체기간을 관통하는 중심가치관이었다.

이러한 공리주의 문학관은 『사상계』 문학전반에 나타나지만 극문학장르에서 특히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작품의 주제 분석 단계까지 가지 않고 텍스트의 수록 경향을 나타내는 도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노골적이다. 한편 타 매체에 비해 편집자 개인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되며 편집자들 간의 강한 결집력을 보이는 잡지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²⁹⁾ 『사상계』로 각 분야 연극관련 필진들을 적극 견인했던 여석기의 공을 빠뜨릴 수 없다. 우리는 1970년 『연극평론』³⁰⁾을 발간하여 한국연극비평의 새 지평을 열었던 여석기의 10년 전의 행보가 『사상계』의 편집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³¹⁾ 그는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드라마센터 개관공연작 『햄릿』의 번역에 관여

28) 유경환, 『『사상계』 15년 小史-기둥 잘린 나무』, 『민족혼, 민주혼, 자유혼-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5, 268쪽.

29) 김아름, 『전후 한국 공론장의 일면 1953-1960 ; 『사상계』와 지식인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3쪽.

30) 서연호·이상우,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299-230쪽. 여석기가 사재를 털어 1970년 봄부터 10년 동안 발행한 『연극평론』은 연극비평의 전문화와 연극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독보적인 연극 전문지였다.

31) 여석기가 사상계사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59년 3월인데 65년 11월 교수과 동으로 사상계사의 편집위원회 전체가 붕괴되던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은 『사상계』에 편집위원으로 기재된다.

한 인연으로 연극계와 빠르게 친분을 맺게 되었고 연극관련 비평문도 쓰게 되었다고 한다.³²⁾ 여석기와 『사상계』 극문학 자료의 수록 경향과의 상관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써 다음을 살펴보자.

1959년께라고 기억한다. 『사상계』 장준하 사장이 나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분과는 초면이었다. 당시 사육이 있었던 종각 근처의 불고기집에서 점심을 대접받으면서 나는 장 사장이 부탁한 편집위원 일을 맡게 되었다. (중략).... 당시 『사상계』는 우리나라 지성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던 월간지였다. 고려대 학생 총수가 5천명이 되지 못하던 때 조그만 구내서점에서만 5백부를 넘게 판다고 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당시의 『사상계』는 신화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거기다 그때의 편집위원들은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쟁쟁한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말석에 끼어든 나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중략)... 당시 편집위원 가운데 문학예술 분야와 관련된 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 많이 관계하였다. 종합지이기 때문에 문학예술 관련기사 특히 작품 게재 지면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는 물론 지금 돌이켜 보아도 『사상계』는 채택 또는 위촉의 수준이 높았던 것 같다.³³⁾

유치진 선생을 통해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극계 사람들을 알게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연극에 관련하게 되면서 비평문이나 리뷰를 쓰게 되었어요. 지금 신문 같은 데서는 외부자의 평을 거의 신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때도 현실적으로 극평을 할 수 있는 지면이 없었어요. 신문 같은 경우 당시는 8면이 나올 때였는데 문화면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딱 한번 나오는데 매일 바뀐단 말예요. 요즘 신문이 40면, 48면이 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는 지면이 더 귀할 때

32) 이해경, 『비평의 명제는 진부로부터의 탈피 - 여석기 교수와의 대화』, 『공연과 이론』 1호,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2000, 12쪽.

여석기는 대학에서 드라마를 가르치다가 연극과 관계를 맺게 된 계기를 드라마센터 개관(1962.4)과 관련하여 유치진과 인연을 맺은 데서 회고한다. 젊은 피를 수혈하고자 했던 유치진이 기존의 연극인이 아닌 이근삼, 김정옥, 여석기 세 사람을 드라마센터 개관을 도와달라고 개인적으로 불렀다고 한다.

33) 여석기, 앞의 책, 153-154쪽.

거든요. 연극평론이 1주일에 한 번 나오면 다행이지. 거기서 극평을 쓴다 합시다. 200자 원고지로 5매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간결하게 핵심만 쓰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 그 당시에는 길게 쓸 지면 주는데도 없고 『사상계』 같은 데야 내가 연고가 있으니까 실을 수가 있지만.³⁴⁾..(후략)

<밑줄 부분은 연구자의 강조> <자료2>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장준하를 처음 만났던 상황과 연극계와 인연을 맺게 된 이 회고담을 통해서 『사상계』의 문학 특히 극문학 관련 텍스트의 게재에 있어 여석기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고려대 영문과 교수이자 국립극장 운영위원(1962.11~1981.4), 한국 셰익스피어협회 상임이사(1963.9~1982.5)시절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상계』 편집위원을 겸임했다.³⁵⁾ 따라서 셰익스피어 특집이 기획되고 학생극과 번역극을 주도했던 번역회극과 브레히트 등의 선진연극이론이 수시로 게재되었던 『사상계』의 극문학 편집전략은 여석기의 이력을 통해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3. 『사상계』의 아카데미즘과 극문학

『사상계』의 매체적 특성은 명백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결합형태이다. 이것은 『사상계』의 편집 목표가 대중의 교육과 계몽이며 편집위원

34) 이해경, 앞의 자료, 13쪽.

35) 31번 각주에서도 밝혔지만 여석기의 사상계사 편집위원 위촉 시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기에 이 논문에서 바로 잡는다. 공식적으로 사상계텍스트 공식 표기는 1959년 3월~1965년 10월까지로 되어있다. 65년 11월은 교수파동에 의해 전체 편집인의 공식 해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로는 편집위원 표기가 없어졌다. 또 여석기 자신이 밝히기를 부완혁 취임 이후에도 잠시 머물렀다 하니(앞의 책, 157쪽) 여석기가 사상계사를 떠난 것은 1968년 11월 이후라 보면 맞겠다.

을 포함한 주요 필진 대부분이 교수 직업을 가진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었고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내재했던 특성이었다. 1960년대 이후 현대문학의 한 영역에서 아카데미즘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사상계』의 문학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근거는 바로 이 매체적 특성에서 기인한다.³⁶⁾ 『사상계』 극문학의 편집전략 역시 공리주의 문학관에 바탕을 둔 대중의 계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상계』는 연극관람후기와 같은 간단한 글에서부터 고난도의 연극이론 소개까지 다양한 연극관련 글들을 수록하는데 당시의 전문 연극인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연극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사상계』를 통해 선진연극이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필진으로 1950년대는 오영진, 유치진, 최재서, 김성한, 양기철, 최일수, 김봉구, 오화섭이 있고 1960년대는 강두식, 김정옥, 김진만, 박용구, 곽복록, 이동승, 노희엽, 박승희, 이경식, 이두현, 이철주, 최일수, 여석기, 이근삼을 들 수 있다.

보편적으로 1950, 60년대 연극계의 키워드를 국립극장 개관, 피란지 공연, 극단 <신협>, 셰익스피어 붐, 번역극과 대학극 흥행, 부조리극, 뮤지컬 등으로 정리하는데 『사상계』극문학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접점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일단 『사상계』극문학 텍스트의 수록 양상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1) 『사상계』의 극문학 수록 양상

(1) 『사상계』내 타 장르와의 비교

『사상계』에 수록된 3대 문학 장르의 작가와 작품 편수를 살펴보면 다

36) 손세일 외, 앞의 좌담, 245쪽. 이 좌담회에 모인 여석기, 서기원, 이청준, 손세일, 박경수는 『사상계』가 우리문학의 질을 높이는 일종의 아카데미즘을 문학 현실에다 접목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문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폭을 넓혔다고 입을 모은다.

음과 같다.

【표1】

장르	국내작가	작품	외국작가	작품	총인원	총 작품 수
시	241명	832편	19명	19편	260명	851편
소설	115명	432편	68명	83편	183명	515편 ³⁷⁾
희곡	8명	16편	5명	5편	13명	21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사상계』에서 다룬 시나 소설에 비하면 희곡의 양과 작가 수는 보다시피 초라하다. 하지만 희곡장르의 고질적인 빈약함을 감안하지 않은 장르별 작품 수의 비교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따라서 타 장르를 제외하고 극문학 장르만 놓고 따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현대희곡선집』에 정전으로 선정된 희곡의 수를 비교해 보면³⁸⁾ 55년부터 60년까지의 기간에는 5편이 선정되었는데 『사상계』 출신 작품이 2편이다. 한 편은 현대연극의 기준이 되는 이근삼의 「원고지」이고 또 한 편은 유치진의 마지막 희곡작품인 「한강은 흐른다」이다. 이근삼은 「원고지」를 『사상계』에 발표하게 된 이유가 당시 사상계의 문학담당이 여석기였기 때문이라고 서연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³⁹⁾ 또 「원고지」 이후 연이어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 역시 『사

37) 김건우의 앞의 책에 실린 부록 편(『사상계』수록 소설) 목록에 총 513편으로 자료 정리가 되어있으나 심훈의 「여우목도리」(1965.10)와 A. 테르츠가 쓴 「펜츠」(1966.4)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총 515편으로 정정한다. 『사상계』의 장르별 작품 게재 수를 정리한 선행연구가 없었는데(소설 제외) 이 논문에서 정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둔다.

38) 김윤정, 「1950~70년대의 문학전집과 한국 근대 희곡의 정전 형성 과정」, 『한국극예술연구』 제57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101쪽.

이 논문에서 『한국현대희곡선집』에 관한 언급을 참고해보면 수록 작품들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발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극사와 희곡사적 평가가 개입되며, 문학과 연극성이 모두 뛰어난 작품들이 정전 목록 안에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이 선집은 과거의 문학전집들과는 달리 ‘반드시’ 읽어야만 할 희곡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39) 서연호, 「극작가 이근삼의 창작활동과 작품세계」, 『언론문화연구』 11권, 서강대

상계』에 실었다고 회고한다. 유치진은 미국의 연극계 시찰을 마치고 온 후 첫 야심작(『한강은 흐른다』)의 발표지점으로 『사상계』(1958.9)를 선택했다. 당시 언론은 이 작품에 대해 종전의 고루한 틀을 벗어나 변화된 연극 문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공연의 성과와 유치진의 문단의 위치를 따져 58년을 대표하는 희곡으로 상당히 호평했다.⁴⁰⁾ 한국 연극사에서 볼 때 당대 최고가는 연극인 유치진을 통해 영문학자이던 여석기가 연극계로 인맥을 넓히고 연극비평을 쓰게 된 일은(<자료 2>참고)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음을 이 두 가지 예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간단한 연극평론을 위한 짧은 지면도 겨우 허락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시대를 대표하는 창작희곡과 번역희곡 또 대학 강의 수준의 연극이론 등을 수시로 게재한 『사상계』의 문예전략이 당시 연극계에 미친 영향력은 동시대 타 매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든 두 작품 뿐 아니라 『사상계』에 게재된 희곡은 창작희곡(시나리오 포함) 16편과⁴¹⁾ 번역희곡 5편인데 다른 희곡 역시 당대를 대표하는 문제작들로

학교 언론문화연구소, 1993, 69-86쪽.

- 40) 유치진의 <한강은 흐른다>는 양에 있어서나 공연의 성과에 있어서나 이 작자의 문단적 위치에 있어서나 금년도(1958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것이었다. 이 작자가 지니고 있는 종전의 고루하게 고정된 생활감정이나 무대적 양식이 현대적 감각과 양식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변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조연현, 『戊戌年의 문단 총결산』, 『조선일보』, 1958.12.26.
유치진이 오랜만에 희곡을 쓰고 연극무대를 떠나 영화로 진출했던 <신협>멤버 전원이 참가한 작품.
『하기 힘든다는 연극 해도 안 봐주는 연극』, 『동아일보』, 1958.10.5
무대를 잃고 영화의 길로 들어섰던 그들이 오랜만에 유씨의 역작을 얻어 보여 줄 이번 무대야말로 꺼져가는 한국극계를 되살리는 힘이 될 것.
『경향신문』, 1958.9.21.
- 41) 오영진의 『정직한 사기한』(1953.9), 『종이 울리는 새벽』(1958.12), 『하늘은 나의 지붕』(1959.5~6), 『심청』(1961.12), 『아빠빠를 입었어요』(1970.3), 차범석의 『성난기계』(1959.2), 『분수』(1960.5), 『공중비행』(1962.12), 유치진의 『한강은 흐른다』(1958.9), 이근삼의 『원고지』(1960.1),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1961.5), 하유상의 『선의의 사람』(1962.12), 이용찬 『표리』(1962.12), 한로단의 『교류』(1966.3~5), 『가족』(1968.6~8), 유순하의 『인간이라면 누구나』(제10회 『사상계』신인문학

연구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오영진, 유치진, 차범석, 이근삼과 같은 당대 대표 극작가 겸 연출자들의 대표작이 『사상계』 지면을 통해 발표된 것은 1950, 60년대의 현대연극사에서 『사상계』가 차지하는 무게를 가늠해 봐야 할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대연극사에서 『사상계』의 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공리주의 문학관에 기반한 이 잡지의 아카데미즘적 성향이 한국연극사에 기여한 공을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연극계는 밀려들어오는 미국 중심의 서구연극에 대한 정보와 기법의 습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지적 굶주림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독자의 갈구에 그 시대 어떤 매체보다 기민한 대처능력이 있어 독보적이었던⁴²⁾ 『사상계』의 진가는 극문학 편집전략을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사상계』는 전문성이 뛰어난 연극이론과 세계연극계의 정보 제공에 특히 중점을 두었는데 주로 미국 및 유럽연극의 희곡계재, 세계 공연정보의 제공, 셰익스피어 특별연재 등을 주도하였다. 『사상계』가 희곡창작품의 계재보다 연극이론 제공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음은 문학관련 논문과 비평의 계재 비율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상계』 수록 비평 목록⁴³⁾을 참고해보면 문학관련 좌담을 포함한 비평문 총 계재수가 688편인데 이 중에 철학 혹은 문예전반이 혼효된 성격을 제외하고 시, 소설, 극문학의 장르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비평의 수만 헤아려보면 시 비평 101편, 소설 비평 136편, 극문학 비평 54편으로 파악된다. 또 계재 지면수를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의 편수로만 비율을 계산하면 【표1】에서 시 : 소설 : 희곡의 작품 계재 비율은 62.0 : 36.4 : 1.6 % 이나 평론의 비율은 34.7 : 46.7 : 18.6 %으로 바뀐다.⁴⁴⁾ 여

상 희곡부문 가작입선작품), (1968.11)

42) 여석기, 『신선감을 주었던 『사상계』 문단』, 앞의 책, 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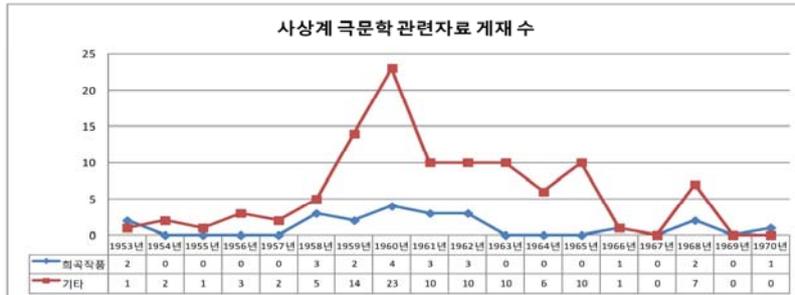
43) 김건우, 앞의 책, 271-298쪽.

44) 평론의 비율 계산은 장르구분이 애매한 텍스트는 제외하고 시, 소설, 희곡평론만 대상으로 하였다.

기서 주목할 부분은 희곡작품은 전체문학에서 비중이 1.6%였으나 희곡 평론의 비율은 18.6%로 시, 소설에 비하여 희곡은 작품 수 보다 평론 수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소설은 창작품과 비평의 비율에 있어서 시는 창작이 좀 더 우세하고 소설은 창작과 비평이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반면 1.6%대에 불과했던 희곡작품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18.6%라는 극비평의 수치는 『사상계』극문학의 문예전략이 창작보다는 선진연극 이론제공에 따른 독자의 계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이러한 특성은 『사상계』내의 장르간의 비교보다도 타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더욱 선명해지므로 당시 최고 문예지 『현대문학』과 대조하여 보았다.

(2) 『사상계』와 『현대문학』의 자료 비교

【표2】 희곡작품 : 21개, 연극이론 및 논문 등 기타자료 : 105개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상계』에 수록된 총 126편의 연극관련 자료 중 순수희곡작품을 제외한 논문이나, 기사, 좌담회자료는 83. 3%에 달하는 105편으로 『사상계』의 편집방향이 순수희곡의 창작보다는 연극관련 정보의 제공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상계』 극문학 자료게재 성향이 순수희곡 쪽보다는 학술성이 강한 이론자료에 집중된 현상은 동시대의 문예지 『현대문학』의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명확하게 표가 난다.

【표3】 희곡작품 31개, 기타자료(논문보다 거의 대부분 희곡 선후평임) 32개



【표2】와 【표3】은 『사상계』 창간부터 폐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45) 『사상계』와 『현대문학』의 극문학 관련 자료의 수록 경향을 조사해 본 것인데 총 자료 수에서 126 : 63으로 『사상계』가 『현대문학』에 비해 정확히 배가 더 많다. 또 종합지와 순문예지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희곡작품의 게재 수에 있어서도 21 : 31로 『사상계』가 크게 뒤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수치를 통해 당시의 극문학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사상계』가 문학전문지를 능가했음이 증명되었다. 또 『사상계』는 1960년 4월 혁명을 기준으로 판매부수와 함께 극문학 관련 글이 확연히 증가했는데 『현대문학』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극문학 필진의 대부분이 현직대학교수였던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4월 혁명을 앞두고 뜨거운 현장강의의 열기가 지면으로 옮겨온 것이라 풀이된다. 또 희곡 21편 중 절반이 넘는 15편이 58년부터 62년까지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연극이론과 비평 역시 이 기간의 게재 편수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문예주간호를 3년 연속 기획하며 공격적인 문학중심의 편집전략을 펼쳤던 『사상계』의 흐름에 『사상계』극문학도 적극 동참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공리주의 문학관을 바

45) 『현대문학』(1955.1~)은 1955년에 창간된 최장수 문학잡지이므로 『사상계』(1953.4~1970.5)와 『현대문학』(1955.1~)의 자료 비교를 위해서 『사상계』가 활동하던 시기와 같은 기간의 『현대문학』자료만 활용하였다.

탕으로 한 이 잡지의 아카데미즘적 성향이 극문학 텍스트의 게재 성향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표출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연극전문지가 없었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연극이론과 연극비평의 발표는 『사상계』 지면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연극평이나 연극관련 기사, 또 희곡심사평 등은 일간지를 비롯한 타 매체에 발표되었다. 『사상계』에 전문적 연극이론을 게재한 대표 연극인을 꼽자면 오화섭과 여석기이다. 두 사람은 ‘한국연극 평론의 1세대’⁴⁶⁾, ‘해방 1세대 학자’⁴⁷⁾라는 평을 듣는 영미 연극번역가이자 이론가로서 또 대학극의 활성화를 꾀한 실무가로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현대연극비평사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이들의 비평 활동은 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사상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옥란은 오화섭과 여석기의 연구에서 1950·1960년대 이 두 사람의 비평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거대언론과 밀착된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널리즘 비평의 속성상 비평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지배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않았다⁴⁸⁾고 평가한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심의 오화섭과 여석기의 비평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사상계』에 발표된 그들의 글들을 살펴보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학술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화섭은 『연극의 르네상스』⁴⁹⁾를 시작으로 『동아일보』에 공연평을 주

46) 김미혜, 『두터운 인문학적 토양위에 한국연극의 초석 다진 기층 여석기』,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4, 143-145쪽.

47) 유민영, 『한국 인물연극사2』, 태학사, 2006, 746-753쪽.

48) 김옥란, 『한국현대연극비평의 기원으로서의 오화섭과 여석기: 1950,1960년대 신문비평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342쪽.

49) 『연극의 르네상스』, 『동아일보』, 1954. 5. 9.

연극의 기원을 찾고 그 본연의 아름다운 시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오늘 날과 같은 극계의 질식 상태를 타계하는 가장 현명한 길일 것이다... (중략) ...연극을 원래의 시적형태로 연구하는 길이 상업극장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로 발표한다. 그는 지면에서 연극계의 질식 상태를 타개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연극을 원래의 시적형태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연극계의 술선수법을 <실험>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1960년대에 들어 신춘문에 심사소감을 포함한 30여 편의 공연평을 『동아일보』에 발표하는데 『사상계』지면을 통해서 연극논문을 주로 발표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의 성격차이이겠지만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는 가벼운 연극평과 심사소감에 그친다. 반면 『연극론 : 원리에 관한 몇 가지 정리』(1957.12), 『독백론 : 방백』(1958.6), 『오페라이야기① : 가극 작곡가와 작품』(1958.8), 『오페라이야기② : 名歌手들의 발자취』(1958.9), 『오페라이야기(完) : 가극과 가극감상』(1959. 10)과 같은 『사상계』에 발표한 텍스트는 서양 연극이론이 주를 이루는데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소논문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춘 것이 특성이다.

여석기의 경우도 오화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신문지면을 통해서 간단한 공연평이나 연극대회와 희곡수상작의 심사평을 주로 발표한다. 여석기가 『사상계』를 통해 발표한 논문은 『르네상스가 가까웠다 - 번역문학 붐이 의미하는 것』(1959.9), 『현대연극의 조류①~完 : 리얼리즘의 확립』(1960.9~12), 『문화계 1년의 반성/1961년의 연극 : 아쉬운 전진에의 자세』(1961.12), 『『고독』의 변주곡<미>/윌리엄즈의 신작극』(1962.4), 『영국극단의 새 물결』(1963.2), 『비인간화와 추상에의 모험/현대예술의 경우』(1963.3), 『한국무대예술의 전망』(1963.5월), 『공연예술 : 정책의 빈곤 · 대중문화의 타락』(1968.5), 『《특집》 『5.16』이후의 한국문화 - 공연예술 · 정책의 빈곤 · 대중문화의 타락』(1968.5) 등이다. 이 중 『현대연극의 조류』는 리얼리즘의 확립, 예술극장운동의 대두, 외면에서 내부로, 다채로운 전개라는 부제를 각각 달고 서구연극 이론과 현대 공연의 흐름에 대한 심층 분석을 4개월에 걸쳐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평범한 대중은 가독성이 떨어질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연극 전공자를 비롯하여 지식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음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2) 대학극 / 번역극의 선도

『사상계』의 아카데미즘이 극문학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 시기는 한국연극계 역시 전후 아픔을 딛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던 때이기도 하다. 1953년에는 연극학회 주최로 전국남녀 중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1954년에는 국방부 주최의 6·25 기념공연과 문교부 주최의 제2회 연극경연대회, 한국연극학회 주최인 대학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또 대학연극경연대회 출신 신인들로 구성된 [제작극회]는 성명서에 ‘사실적이건 상징적이건 간에’ ‘현대극 양식’을 표방하며, 차범석 번역, 연출로 1956년 7월 <사형인>을 창립공연으로 올린다. 이 때 등단한 극작가 차범석과 연극학자 이두현은 이후 『사상계』 지면을 통해 활발히 작품을 발표하고 연극이론을 게재하면서 『사상계』 극문학을 이끌어가는 핵심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또 1958년에는 ITI(국제연극협회)의 한국본부가 창립되어 국제적인 연극 교류의 길도 트이는데 ITI의 창립멤버였던 유치진(위원장), 오영진(부위원장), 오화섭, 이두현, 차범석(상임위원) 등이 『사상계』에 활발히 연극관련 글들을 발표하던 때와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은 『사상계』와 연극계와의 영향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다.⁵⁰⁾

1950년대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연극교육기관의 등장인데 1953년 10월 최초로 서라벌예술학교가 연극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잇따라 중앙대학교(1959), 동국대학교(1960)에 연극영화과가 생긴다. 이 사실은 연극계에 전문 연극인 양성의 길이 확고해졌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대학극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대학 내 연극학과의 개설은 대다수가 교수이던 『사상계』 연극인들이 당시의 연극계

50) <부록 1> 참고.

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준엽의 회고에 의하면 1960년대 초 정기구독자만 1만 6,000명이었던 『사상계』와 대학생의 밀접한 관계는 사상계를 읽지 않는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라는 말이 생겨났으리만큼 이 잡지가 명실상부한 대학생, 지식인의 반려였다고 한다. 참고서 얻기도 어려웠던 시절이라 학생들은 자기가 청강하는 교수들의 논설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겼다⁵¹⁾는 말을 고려할 때 영문학자이자 대학교수였던 최재서, 여석기, 오화섭, 이근삼 등 『사상계』연극인들이 게재한 극문학 관련 자료들은 극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수용자에게는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서서 정전의 기능까지 하였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극이 활성화되던 이 시기에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사상계』독자들을 자극하여 현대연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음은 당연지사이다.

한편 『사상계』는 국내의 학술 연구논문 외에도 번역논문과 번역문예물의 현상모집을 하였으며 학술논문 발표와 학문적 논쟁의 장을 수시로 마련했다. 또 해외문학 수용과 문학이론 소개 등의 활발한 기획을 통해 지식인 독자들이 문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도하였다. 이 잡지는 동시대 타 매체보다 실험정신이 뛰어났으며 밀려오던 해외문학의 새로운 조류를 별다른 저항 없이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솔제니친의 초기작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같은 작품을 나오자마자 소개할 정도로 해외문학 수용에 민첩했다.⁵²⁾ 이렇게 독자들의 지적 갈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거나 더 나아가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사상계』가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집합체로서 서구문화 수용에 있어 가장 첨병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상계』 극문학의 해외문학 작품과 서구 이론 수용의 적극성은 앞의 이유에다가 당시의 미국이 시행한 문화정책도 한 몫 거들었다고

51) 김준엽, 앞의 책, 86쪽.

52) 손세일 외, 앞의 좌담, 237-239쪽.

할 수 있다. 전후 한국지식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행되던 당시 미국의 교육지원은 연극계 지식인들에게도 투자형태로 표출된다. 그 예로 미 정부는 한국연극계를 대표하는 오영진, 유치진, 이해랑 등을 미국에 초빙하고 미국희곡들의 한국에서의 공연을 지원하거나 한국어 번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또 미국연극인들과 학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미국연극의 직접적인 소개 사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미국정부가 펼친 여러 가지 연극정책의 결과 50년대에는 많은 브로드웨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유진 오닐·아서 밀러·테네시 윌리엄스·플체데릭 노트 등의 미국작가의 작품이 주로 공연되었다. 이렇게 미국 브로드웨이류의 현대극이 우리 연극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당시 우리 연극이 미국연극의 영향아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번역극의 공연이 활발해진 50년대에 영, 미 희곡의 비중이 특히 커지며 이렇게 한국에 도입된 서양연극들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근대극의 극작술과 공연술에 직접, 간접으로 혹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⁵³⁾ 이 때의 『사상계』 역시 선진 연극이론과 번역극의 소개에 적극적이었는데 특히 셰익스피어 관련 연극이론의 게재가 두드러진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의 연극계는 「햄릿」·「맥베드」·「오셀로」·「줄리어스 시저」 등의 셰익스피어 작품의 왕성한 공연이 있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1969년⁵⁴⁾까지 공연된 서양연극작품은 총 450여 편, 이 중 영미 작품이 280여 편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가장 많은 작품이 공연된 작

53) 신현숙, 『우리나라 번역극의 역사: 서양연극을 중심으로』, 『연극의 이론과 비평』,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2002, 22쪽.

54) 시기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연구의 주 목적이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의 『사상계』의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이어서 미군정이 시작되어 연극계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던 시기부터 『사상계』가 폐간되기 직전까지로 시기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서지사항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가는 단연 셰익스피어인데 무려 70여 편에 달하는 그의 작품이 이 기간 동안 한국연극무대에 올랐다.⁵⁵⁾ 또한 1950년대에 들어와 각 대학의 셰익스피어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학문적인 연구와 연극공연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연출가 이해랑에 의한 극단 신희(新協)의 활약이 컸다. 그리고 1964년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 기념행사를 정점으로 셰익스피어 공연과 연구는 더욱 활발해진다.

『사상계』 극문학 관련 자료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번역희곡 작품에 관한 자료인데 이 중에서도 셰익스피어 관련 자료가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강단에서 셰익스피어의 붐을 일으킨 것은 <셰익스피어 연구>로 우리나라 최초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재서의 업적이 크다.⁵⁶⁾ 최재서는 강단의 강의를 『사상계』 지면으로 그대로 옮겨왔는데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론을 시리즈로 연재하여 『사상계』 독자들의 지적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에 탁월했다. 『사상계』에 게재된 첫 연극이론인 최재서의 「지성의 비극」⁵⁷⁾은 이화여대영문학회 주관 「영문학의 밤」에서 발표한 강의를 수정한 것으로 사상계사에서 강연을 녹음했기 때문에 글로써 남을 수 있었다. 이 자료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강연록으로 연극의 중심인물로서의 햄릿뿐 아니라 지성인으로서의 햄릿의 성격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셰익스피어 연구시리즈⁵⁸⁾를 통해서도 『사상계』 극문학

55) 신정옥 외, 「서양연극 공연 연표」, 『한국에서의 서양연극』, 천화, 1999, 514-543쪽.

56) <최재서 교수 영문학 박사수여>, 『동아일보』, 1961.06.19.

57) 최재서, 「지성의 비극」, 『사상계』 1955년 12월호, 287-308쪽.

58) 다음은 『사상계』에 수록된 최재서의 셰익스피어 논문 목록이다.

「지성의 비극」, (1955, 12), 「셰익스피어 연구초① :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 (1959, 1), 「셰익스피어 연구초② : 에이븐강의 백조」, (1959, 2), 「셰익스피어 연구초③ : 시성의 수업시대」, (1953, 3), 「셰익스피어 연구초④ : 셰익스피어 史劇 싸이클」, (1959, 6), 「셰익스피어 연구초⑤ : 셰익스피어 史劇 싸이클의 제14부작」, (1959, 7), 「셰익스피어 연구초⑥ : 정치는 음악처럼 - 헨리5세의 주제와 상징」, (1959, 8), 「셰익스피어 연구초⑦ : 호랑의세계 - 헨리6세 3부작」, (1959, 10), 「셰익

의 아카데미즘적인 특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상계』에 수록된 대부분의 극문학이론과 논문은 마치 대학 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상계』가 다른 매체와 확연히 다른 변별점을 보이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 변별점을 동시대 타 매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상계』만의 고유 활동이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이 특성은 제도 아카데미즘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와 대중매체인 『사상계』의 학술적 성격이 거의 구분되지 않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지식을 분류하여 특정 분야의 학문을 학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학문의 위계화를 도모하는 것에 『사상계』가 거의 독보적 위치를 점⁵⁹⁾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스피어 연구초(完) : 인간혼돈 - 리처드3세가 의미하는 바,(1959, 11), 『續 셰익스피어 연구초①: 희극에서 비극으로 - 셰익스피어 예술의 실험』(1960, 5), 『셰익스피어의 휴머니즘』(1964,3),

59) 김미란,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방식-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8권, 대중서사학회, 2012, 194쪽.

4. 결론

사상계사는 종합지임에도 창간초기부터 공격적인 문예전략을 폈다. 특히 동인문학상, 신인문학상, 『사상계』 논문상, 『사상계』 번역상 등을 제정하고 학문의 발전을 민족 지성 발전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아카데미즘 성격이 강한 문학관을 표방한다. 또 번역상 제정의 목적이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⁶⁰⁾ 공표할 정도로 『사상계』의 문예전략은 대중의 계몽과 교육에 중점을 둔다. 이 잡지는 새로운 지식, 문화, 이론의 수용을 위해 외국의 매체와 언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해외 문학의 수용 성향은 순수문학보다는 사회성이 강하거나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작품 쪽으로 편향되는데 이는 이 잡지의 이념적 특성이 문예전략에 투영된 결과이다.

이 논문의 초점도 『사상계』가 아카데미즘을 극문학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연극계의 지적 풍토 계발을 위해 노력한 점에 맞춰져 있다. 전쟁과 미정보국의 상업영화 유포정책이 강하게 적용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연극이 위축되었던 시절에 『사상계』가 시행한 극문학 전략은 당시의 한국연극을 활성화 시킨 중심 에너지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4.19를 기점으로 『사상계』 판매부수 확대와 동일하게 극문학 자료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대학 강의의 뜨거운 열정이 『사상계』 연극인들에 의해 지면으로 곧장 옮겨올 수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만큼 『사상계』 극문학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민감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미국 중심의 선진 연극문화를 적극 게재하여 대학극과 번역극의 활성화를 주도한 특성은 동시대 타 매체와 『사상계』를 변별하게 하는 핵심점이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사상계』가 연극전문지의 공백기를 훌륭하게 대체한 매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여석기 발행의 『연극평론』으로 연극전문지의 맥이 이어지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사상계』 극

60) 『사상계』, 1955년 10월호, 3쪽.

문학의 수록양상이라는 새로운 프리즘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 그리고 한국연극사의 발전에 있어 『사상계』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의의를 짚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한편 동인계 극단, 부조리극, 실험극 등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관계나 『사상계』 희곡 중 시대를 대표하는 문제작에 대한 주제 분석 등은 이 논문의 다음에 주어질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사상계』 1953년 4월호~1970년 5월호까지 통권 205호 전체.
『현대문학』 1955년 5월호~1970년 5월호.
『조선일보』, 『동아일보』 1953년~1970년까지 연극관련기사.

2. 2차 자료

- 김건우, 『1950년대 후반 문학과 <사상계> 지식인 담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_____,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미란,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방식 - 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8권, 대중서사학회, 2012, 193-234쪽.
김미혜, 『두터운 인문학적 토양위에 한국연극의 초석 다진 기층 여석기』,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4.
김삼웅, 『장준하 평전』, 시대의 창, 2009.
김숙현, 『극단의 정체성 형성과정』, 『한국 근·현대 연극 100년사』, 한국 근·현대 연극 100년사 편찬위원회, 집문당, 2009.
김아름, 『전후 한국 공론장의 일면 1953-1960: 『사상계』와 지식인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김옥란, 『한국현대연극비평의 기원으로서의 오화섭과 여석기: 1950,1960년대 신문비평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 연구』4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341-374쪽.
김윤정, 『1950~70년대의 문학전집과 한국 근대 희곡의 정전 형성 과정』, 『한국극예술연구』 제57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73-105쪽.

- 김준엽, 『<사상계>와 나』, 『장정5 - 다시대륙으로』, 나남출판, 2001.
- 나중석, 『1950년대 실존주의 수용사 연구』, 『헤겔연구』 27권, 한국헤겔학회, 2010, 241-273쪽.
- 박경수, 『죽음을 각오한 장선생의 맞서기』,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6.
- 박명진, 『1950년대 희곡의 인식적 지도』, 『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 서연호, 『한국연극사』, 연극과 인간, 2005.
- _____, 『극작가 이근삼의 창작활동과 작품세계』, 『언론문화연구』 11권,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1993, 69-86쪽.
- 서연호·이상우,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 신정옥 외, 『서양연극 공연 연표』, 『한국에서의 서양연극』, 천화, 1999.
- 신현숙, 『우리나라 번역극의 역사: 서양연극을 중심으로』, 『연극의 이론과 비평』 3,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2002, 22-39쪽.
- 손세일 외 좌담, 『한국문단에 새 바람 일으킨 사상계』, 『민족혼, 민주혼, 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5.
- 여석기, 『현대연극』, 『한국현대문화사대계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8.
- _____, 『사상계 편집위원8년』, 『나의 삶, 나의 학문, 나의 연극』, 연극과 인간, 2012.
- _____, 『신선감을 주었던 『사상계』문단』, 『민족혼·민주혼·자유혼 -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6.
- 오영미, 『1950년대 한국희곡연구』, 경희대학교박사논문, 1996.
- 유경환, 『『사상계』15년 小史-기둥 잘린 나무』, 『민족혼, 민주혼, 자유혼-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6.
- 유민영, 『한국 인물연극사2』, 태학사, 2006.
- 이봉범,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 -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397-454쪽.

- 이혜경, 『미국연극』, 『한국에서의 서양연극』, 천화, 1999.
- _____, 『비평의 명제는 진부로부터의 탈피 - 여석기 교수와의 대화』, 『공연과 이론』 1,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2000, 11-19쪽.
- 정진석, 『한국잡지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최강민, 『『사상계』의 동인문학상과 전후문단재편』,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 _____,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 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브니엘』, 『장준하문집3-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Sasanggye』
in Korean Theater History

- focused on the aspects including the dramatic literatures in
the 『Sasanggye』 in the blank period of theater magazine
(1950s and 1960s)

Kim, Kyoung-Sook*

This study is one of the tasks to understand the flow of the Korean modern theater, which focuses on the existence of the 『Sasanggye』 despite of the recession and depression after the Korean War, which is the main reason for the revival of the modern theater in the 1960s. Overcoming the ravages of war, In the period from the late 1950s to the 1960s, the theatrical circles is so active that it is called the Renaissance or the start of modern theater in Korea, and the prevalence of academic dramas based on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and the activities of the theatrical company are outstanding. Also, the activities of researchers and critics who come in contact with the advanced theater culture centered in the United States play a major role in revitalizing the postwar theatrical circles depressed.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it was the time when the need of professional theater magazines became more desperate, introducing so

* Pusan National University.

many western theater theories and performing culture, informing and analyzing the trends of the Korean theater circles.

But, jus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theatrical magazine, the «Play Literature» came out briefly, but the professional theater magazines couldn't be found anything later in the 1950s. In 1965, only quarterly magazine, the «Theater» was released barely, and finally, it was discontinu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twice publications. Like this, In the 1950s and 1960s, which is what we would call the barren period of the professional theater magazines, it is very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asangye』, which was not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but the general magazines, accepted the theater theses and the advanced theater theories.

The 『Sasangye』, from 1953, the first publication year, has published consistently creative plays and translation plays and the advanced theater theories. In the peak of circulation, on the occasion of '4.19'(1960), the amount of theater writing is also noticeably increased, showing an unusual aspect of drawing curve similar to the 『Sasangye』 circulation. This study is meant to examine the topography of Korean theater history in the 1950s and 1960s by looking into the plays, plays theses and the critical aspects published in the 『Sasangye』.

For the objectivity of the study, aspects of writings in the 『Hyundae-MoonHak』, which was representative pure literary magazine and journal articles on dramatic literature on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and other daily newspapers are used as the contrast groups with the 『Sasangye』, which were contemporary with the 『Sasangye』 all.

Key Words: 1950s, 1960s, The start of modern theater in Korea, The barren period of professional theater magazines, 『Sasangye』, The topography of Korean theater history, journal articles on dramatic literature.

『사상계』 희곡관련 자료

(부록1)

작가	제목	연월호
오영진	문화공세론	1953년 6월
오약(김광주 譯)	『인수지간』 (희곡)	1953년 7, 9, 11월
오영진	『정직한 사기꾼』 (희곡)	1953년 9월
오영진	아메리카 기행	1954년 6월
유치진	민족문화 향상을 위한 나의 제언 : 학술원·예술원의 발족을 보고	1954년 11월
최재서	지성의 비극 : 『햄릿』의 현대적 해석	1955년 12월
김성한	고전해설⑤ : 고대 그레샤 비극	1956년 1월
양기철	영화와 연극	1956년 6월
타이론 가스리	와일더의 예술과 인간	1956년 12월
최일수	현대희곡의 특질	1957년 5월
오화섭	연극론 : 원리에 관한 몇 가지 정리	1957년 12월
T.와일더 (오화섭 譯)	『즐거운 여행』 (희곡)	1958년 4월
오화섭	독백론 : 방백	1958년 6월
M·F·부코훗쎄 (이종구 譯)	음악의 지위 : 시각예술의 견지에서	1958년 7월
오화섭	오페라이야기① : 가극 작곡가와 작품	1958년 8월
유치진	『한강은 흐른다』 (희곡)	1958년 9월
오화섭	오페라이야기② : 名歌手들의 발자취	1958년 9월
S.P.얼만(이종구 譯)	유진·오늘의 문학세계	1958년 10월
오영진	오리지널 시나리오 『종이 울리는 새벽』 (시나리오)	1958년 12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① :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	1959년 1월
차범석	『성난 기계』 (희곡)	1959년 2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② : 에이븐강의 백조	1959년 2월
오영진 외	문화가의 주변	1959년 3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③ : 시성의 수업시대	1959년 3월

작 가	제 목	연 월호
오영진	오리지널 시나리오 『하늘은 나의지붕』 (시나리오)	1959년 5, 6월
김봉구	고전해설-발자크의 『인간극』	1959년 5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④ : 셰익스피어 史劇 싸이클	1959년 6월
오화섭	답보하는무대·변모하는무대 : 구이년도 상반기 무대예술총평	1959년 7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⑤ : 셰익스피어 史劇 싸이클의 제14부작	1959년 7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⑥ : 정치는 음악처럼 - 헨리5세의 주제와 상징	1959년 8월
오화섭, 최재서, 여석기 외	르네상스가 가까웠다 - 번역문학 붐이 의미 하는 것	1959년 9월
오화섭	오페라이야기(完) : 가극과 가극감상	1959년 10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⑦ : 호랑의 세계 - 헨리6세 3부작	1959년 10월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完) : 인간혼돈 - 리처드3세가 의미하는 바	1959년 11월
오화섭	1959년의 문화가 : 연극·전위파역의 소극장 운동	1959년 12월
이근삼	『원고지』 (희곡)	1960년 1월
오화섭	영어영문학 편편록⑤ : 용의주도한 계산극 : 햄릿의 『무언극』	1960년 2월
김정옥	전위극의 기교	1960년 3월
김정옥	상황의 연극 : 샤르트르의 신작 『알토나에 감금된 자들』	1960년 4월
차범석	『분수』 (희곡)	1960년 5월
강두식	오십년대의 독일 연극	1960년 5월
이근삼	상실된 인지의 꿈 : 『장미의 상실』의 공연 결과를 듣고	1960년 5월
최재서	續 셰익스피어 연구초① : 희극에서 비극으로	1960년 5월
이근삼	미국의 야외극 - 『심포닉·드라마』를 중심 해서	1960년 7월
김진만	경험·현실·자유 - 산문문학의 가능성	1960년 7월
오화섭	현대연극에 있어서의 『시』	1960년 8월

작 가	제 목	연 월호
이근삼	극평가 애트킨슨의 은퇴	1960년 8월
E.오닐(오화섭 譯)	『동으로 카이티프를 향하여』(희곡)	1960년 9월
여석기	현대연극의 조류① : 리얼리즘의 확립	1960년 9월
김정옥	연극 이론가로서의 브레히트	1960년 9월
오화섭	20세기작가연구⑬ : 안주지로서의 비극 : E·G·오닐論	1960년 9월
이근삼	새 극예의 연결점 : 겔바의 『연결점』이 갖는 의의	1960년 9월
김진만	셰익스피어	1960년 9월
여석기	현대연극의 조류② : 예술극장운동의 대두	1960년 10월
이근삼	동물원에 수감된 인간상 - 알비이의 『동물원 이야기』	1960년 10월
여석기	현대연극의 조류③ : 외면에서 내부로	1960년 11월
이근삼	리리안·헬만 여사의 귀향 : 『지붕밑 방의 장난감』 공연의 의의	1960년 11월
E.이오네스코 (김정옥 譯)	『강의』(희곡)	1960년 12월
이근삼	1960년의 연극 : 요란했던 구호·진전없는 무대	1960년 12월
여석기	현대연극의 조류(完) : 다채로운 전개	1960년 12월
윌래스·파울리	새로운 프랑스 연극 : 알포오, 베게트, 쥘네, 이오네스코	1960년 12월
김정옥	반연극의 언어	1961년 2월
이근삼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희곡)	1961년 5월
김정옥	파리의 무대에 올려진 『카프카』	1961년 5월
이근삼	직공 디레니양의 기적 - 『꿀맛』의 뉴욕공연	1961년 6월
김성태, 김주영, 박용구, 이청기	새로운 예술운동의 모색	1961년 6월
박용구	어느 날의 예술수첩 - 음악·연극	1961년 7월
이근삼	애란극작계의 새로운 방향 - 부렌단 보오한의 『인질』을 읽고	1961년 9월

작가	제목	연월호
존스타인벡 (노희엽 譯)	『붉은 망아지』 (희곡)	1961년 11월
이근삼	미국 극계의 젊은 전위적 작가(상) - 겔머와 리차드슨의 경우	1961년 11월
곽복록	전후 독일 연극	1961년 11월
여석기	文化界 1년의反省 - 1961년의 연극 : 아쉬운 전진에의 자세	1961년 12월
오영진	『심청』 (시나리오)	1961년 12월
여석기	박수 잃은 한국연극	1962년 1월
이동승	브레히트의 『망명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1962년 2월
여석기	『고독』의 변주곡<美> - 윌리엄즈의 신작극	1962년 4월
오영진	한 점의 검은 구름이 - 나의 20대는 너무도 길었다	1962년 4월
문상득	셰익스피어의 무대(영국)	1962년 5월
이근삼	미국 극계의 젊은 전위적 작가(하) - 알비이와 코팻트의 경우	1962년 9월
김진만	문학의 형성(1) - 영국 현대극과 『리추얼』에의 복귀	1962년 9월
노희엽	스타인벡의 작품세계	1962년 11월
이근삼	사라진 문호·기타 - 1962년의 사건들	1962년 11월
곽복록	최근 독일 연극의 동향	1962년 12월
차범석	『공중비행』 (희곡)	1962년 12월
하유상	『선의를 사람』 (희곡)	1962년 12월
이용찬	『표리』 (희곡)	1962년 12월
여석기	영국극단의 새 물결	1963년 2월
최석규	괴로운 박수<佛>	1963년 2월
여석기	비인간화와 추상에의 모험 - 현대예술의 경우	1963년 3월
강두식	서사적 무대의 전형(독일)	1963년 3월
여석기,오화섭	한국무대 예술의 전망/여석기, 오화섭	1963년 5월
박승희	토월회 이야기(1)	1963년 5월
여석기 외	한국무대예술의 전망	1963년 5월

작가	제목	연월호
박승희	토월회 이야기(2) : 한국 신극운동을 회고한다	1963년 6월
이동승	에리히·캐스트너의 희곡 『독재자학교』를 중심으로	1963년 7월
박승희	토월회 이야기(3) : 한국 신극운동을 회고한다	1963년 8월
오화섭	문학적 비평의 위험지대 - 셰익스피어 비평의 문제점	1964년 3월
최재서	셰익스피어의 휴머니즘	1964년 3월
이근삼	해외문단 - 미국의 꿈은	1964년 4월
이근삼	작품연구④ 『원죄를 저지른뒤』 - 무한한 인간애와 즐기찬 실험정신	1964년 6월
노희엽	고뇌하는 미국의 극문학	1964년 7월
이경식	셰익스피어 400주년제 - 현지에서 본 유사 이래의 대축제	1964년 7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① : 협율사와 원각사 - 한국 최초의 국립극장	1965년 2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② : 신파극의 시대 - 제2기 혁신단과 문수성(기1)	1965년 3월
여석기	이론과 실천 양면에 걸친 업적 - 극작가로서의 엘리오토	1965년 3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③ : 유일단과 그 밖의 신파극단 - 제2기 혁신단과 문수성	1965년 4월
황운현	미국사회를 고발하는 증인 - 가장 非헐리우드의인 작가 엘리야·카잔	1965년 5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④ : 토월회와 잔여극단 - 근대극의 태동에서 토월회의 전성기까지	1965년 7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⑤ : 극예술연구회	1965년 8월
이철주	특집 8·15이후의 북한 : 북한 무대예술인의 운명 - 북한의연극·영화·음악계의 현황	1965년 8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⑥ : 상업극단·화려하던 시절 - 제4기 극예술연구소와 동양극장(기2)	1965년 9월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⑦ : 조선연극협회결성과 활동 - 제5기 조선연극문화협회 1940-1945	1965년 11월
한로단	『교류』 (희곡)	1966년 3 ~ 5월
최일수	시극의 가능성 : 내재율의 시각적 구조	1966년 5월

작가	제목	연월호
여석기	공연예술 : 정책의 빈곤 · 대중문화의 타락	1968년 5월
오화섭	《특집》 『5.16』이후의 한국문화 - 희곡/시 나리오 · 너무나 신경과민인!	1968년 5월
이근삼	《특집》 『5.16』이후의 한국문화 - 연극 · 외국엔 해명 어려운 『예총』	1968년 5월
여석기	《특집》 『5.16』이후의 한국문화 - 공연예 술 · 정책의 빈곤 · 대중문화의 타락	1968년 5월
오영진 외	한국학의 형성과 그 전망⑤ - 한국의 연극 · 영화	1968년 6월
한로단	『가족』 (희곡)	1968년 6 ~ 8월
김자경	예술의 프리즘⑥ : 오페라의 역사와 무대	1968년 8월
이근삼	현대 미국의 연극	1968년 10월
유순하	제10회 사상계신인문학상희곡부문 가작입선 작품 : 『인간이라면 누구나』 (희곡)	1968년 11월
오영진	『아빠뻘을 입었어요』 (희곡)	1970년 3월

『현대문학』 희곡관련 자료

(부록2)

작 가	제 목	연 월호
유치진	연극생활 30년기	1955년 5월
유치진	희곡 선후감	1955년 9월
임희재	복날 (희곡)	1956년 1, 2월
임희재	고래 (희곡)	1956년 8월
오상원	잔상 (희곡)	1956년 9월
정진업	희곡문학의 연극성	1956년 11월
이광래	희곡천후기	1957년 2월
이광래	희곡천후기	1957년 11월
이광래	희곡천후기	1957년 12월
김상민	폭음(爆音) (희곡)	1957년 12월
정구하	불가사리 (희곡)	1957년 12월
정진업	누가 옳으냐 (희곡)	1957년 12월
임희재	중전차(終電車) (시나리오)	1957년 12월
차범석	계산기 (희곡)	1958년 3, 4월
김상민	향연의 밤 (희곡)	1958년 4월
이광래	희곡 천후평①	1958년 5월
주평	성야(聖夜)의 곡(曲) (희곡)	1958년 5월
오학영	생명은 합창처럼 (희곡)	1958년 5월
유치진	희곡후기	1958년 5월
오학영	꽃과 십자가 (희곡)	1958년 8월
이광래	응모희곡 독후감	1958년 10월
유치진	희곡 천후기	1959년 1월
장한기	현대 연극의 방향	1959년 1월
이광래	희곡 심사기	1959년 2월
이광래	응모희곡 독후감	1960년 6월
유치진	희곡 천후기	1960년 8월

작 가	제 목	연 월호
한성	태양의 성과 (희곡)	1960년 8 ~ 11월
박동화	창문을 닫아라 (희곡)	1961년 2월
후릿츠 마르티니 (전혜린譯)	현대 독일희곡의 개관	1961년 5월
이광래	희곡 천후기	1962년 2월
이유식	인간연극론	1962년 7월
이광래	응모희곡 독후감	1963년 9월
김상민	증세 (희곡)	1964년 5월
유치진	희곡 천후기	1964년 11월
유치진	연극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1964년 11월
김도희	표류도 (희곡)	1964년 11월
김상민	유랑극단 (희곡)	1965년 2월
이광래	희곡 천후기	1965년 2월
김홍우	일그러진 얼굴 (희곡)	1965년 2월
송평	잘못된 입찰 (희곡)	1965년 2월
오학영	시인의혼 (희곡)	1965년 2월
강성희	자장가 (희곡)	1965년 3월
이광래	희곡 천후기	1965년 4월
전옥주	천료소감	1965년 4월
차범석	희곡문학의 개관	1965년 4월
전옥주	방황자들의 대화 (희곡)	1965년 4월
이광래	연극과 문학	1965년 6월
박진	외곶으로 지켜온 연극	1965년 8월
전옥주	어느 과도기(過渡期)에서 (희곡)	1966년 1월
김상민	산에서 (희곡)	1966년 2월
조일재	[한국 최초의 신소설] 한국 최초의 희곡 - 병자삼인(病者三人) (전4장 희곡)	1966년 5월

작 가	제 목	연 월호
오재호	갈가마귀 (희곡)	1967년 6월
장백일	희곡문학의 현황과 그 방향	1968년 1월
차범석	현대희곡의 특성	1968년 1월
오혜령	제13회 현대문학신인문학상 결정 [수상소감] (희곡부문)	1968년 2월
오혜령	환상방황(環狀彷徨) (희곡)	1968년 4월
오학영	악인의 집 (희곡)	1968년 7월
유치진	희곡추천후기	1969년 10월
김숙현	잔영 (희곡)	1969년 10월
유치진	희곡추천후기	1969년 12월
홍성원	[특집 나의레크리에이션] 연극	1969년 12월
김창호	컴포지션F (희곡, 단막극)	1970년 2월
K.오스트라우스카 스(박항서譯)	무덤파는 사람들 (희곡)	1970년 3월

■ 논문접수 : 2018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2일

■ 게재확정 : 2018년 8월 17일